

색깔을 통해본 인류의 역사와 생활문화 금기나 상징 등 색채의 속이야기 찾아내

— 「색깔있는 이야기」 펴낸 박영수씨

이 책 그 사람

모든 사물들은 고유한 색을 갖고 있다. 그래서 딱 한번 만난 사람을 떠올릴 때면 얼굴 보다는 그 사람의

옷차림이나 피부색이 먼저 생각난다. 또 한번쯤은 지나쳤거나 들렀을 성실은 장소도 그 부근의 인상깊은 건물의 색이나 간판의 색깔을 떠올리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의 색채각각이 대단히 예민하다는 설을 대변해 주는 사례이다.

최근에 출간된 「색깔 있는 이야기」(새길)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색의 개념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해 '역사와 생활문화'를 조명하는 예세이다.

저자는 「숫자 끼리」라는 책으로도 잘 알려진 박영수씨(34). 그는 「숫자 끼리」 이후 집필에만 몰두해 「색깔 있는 이야기」를 완성했다. 이 책에서 그는 색을 매개로 삼아 각국의 역사를 파헤치기도 하고, 인간의 심리세계를 열어보기도 한다. 또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의 세계와 자연의 세계, 상징의 세계, 여성들의 세계, 미술의 세계 등 인간의 문화영역 전반에 걸쳐 색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색은 생활에서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작용합니다. 이것은 색의 개념 속에 각기 다른 상징과 의미가 내재돼 있다는 말과 같지요. 인간의 문화를 조명함에 있어서 딱딱한 이론으로 전개하기보다는 한발자국 물러서서 색깔이라는 매개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이 책에서 시도한 '색채 탐험'의 목적은 색깔 뒷면에 숨어있는 역사와 감정, 철학을 추출해 내는 것이다. “색을 알고

역사를 보면 역사적 사실이 한층 재미있다”는 주장은, 그의 놀라운 입담에 묻혀서 거듭 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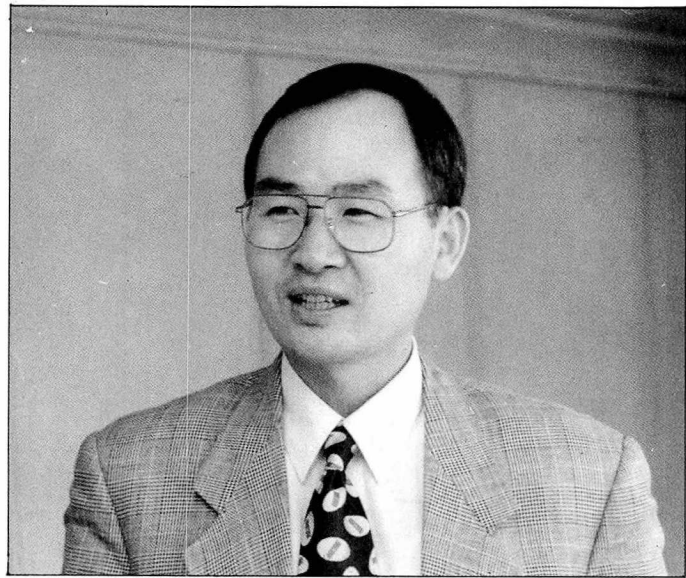
조선시대 때 왕실에서 금기시했던 옷의 색은 회색이었는데, 이유는 그 색이 조선시대 내내 천대시했던 승려의 옷 색깔과 같았기 때문이라든지, 백자로 된 그릇을 쓰던 서민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왕실에서는 푸른 빛이 도는 청자만을 썼다는 얘기가 그것이다. 박영수씨는 청와대의 '청기와'도 임금, 즉 절대 권력을 상징했던 산물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전한다.

역사에 묻힌 색채의 사연들을 찾아내는 데는 그가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한 이력이 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외국의 역사와 그에 관련한 풍부한 사례를 얻어내기 위해 해외여행도 수차 다녔다.

“역사라는 주제에 접근하려면 그 시대의 대중성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더라도 그 나라의 건축물이나 풍습 그리고 식문화나 예술영역까지도 빠짐없이 보려고 하죠. 사실 현장에서 그들의 행동이나 언어 속에 꼭꼭 숨어있는 역사성을 발견할 때가 가장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확인 없이는 색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론도 갖고 있고요. 이 책에 써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발로 쓴 느낌이 들어서 애착도 그만큼 큼니다.”

그는 앞으로도 「색깔 있는 이야기」와 유사한 성격의 책을 낼 생각을 갖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마빈 해리스나 데스먼드 모리스와 같은 문화인류학적인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전한다.

— 배은희 기자



정보화시대 주도해나갈 직장인의 성공학 미래에 적응하는 획기적 발상전환 강조

— 「21세기형 슈퍼샐러리맨」 펴낸 윤은기씨

이 책 그 사람

“아내와 자식을 빼고는 모두가 바꾸라”는 어느 그룹 회장의 갈파가 귀에 쟁쟁한 요즘이다. 그 말과 맥을 같이해

글로벌화다, 정보혁명이다, 무한경쟁이다, 하이테크다 하며 “세상이 상상을 초월하며 크게 변하고 있음”이 운위되는 때라 그 속을 헤쳐나가야 할 샐러리맨들은 “어떻게 이 변화에 대처해야 할지” 어리둥절해 있다.

「시테크」의 저자 윤은기(43, 정보전략연구소 소장)씨가 이번에는 이러한 현실에 적응 내지는 주도해 나갈 ‘인물상’을 제시한다. 뭔가 바뀌긴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왜”는 알겠는데 “어떻게”는 몰라 답답했던 이들이 들으면 귀가 번쩍뜨일 이야기들이다.

“최근 기업혁신의 현장에 참여하면서 가장 뼈저리게 느낀 것은 첫째는 혁신의 방향성을 정보화사회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혁신의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는 혁신의 참여자들이 신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의 요지는 이 책에 128개의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그것이 많다면 따로 제시된 ‘21세기 샐러리맨의 십계명’을 기도문처럼 명심하면 된다. 물론 모든 병의 처방전이 그렇듯 ‘최선의 방법’만을 일러줄 뿐,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히 실천하느냐에 따라 ‘보약’은 ‘묘약’이 될 수 있는 법. 저자에 의하면, 이제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21세기는 더이상 노동력이 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던 산업사회가 아니다. 정보가 힘의 원천인 사회다. 정보는 거시적 안목, 균형감각, 정확한 판단력이 전제돼야만 정보, 그중에서도 ‘양질의’

정보가 모인다. 그런 자질은 일개미나 백면서생으론 어렵다. 영리한 ‘베짱이’가 더 뛰어날 수 있다는 논리다.

눈길을 끄는 세목들이 많다. 가령, “아내를 관리하라” “주말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놀아라” “자원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라” 등. 예전의 최고 아내상이 ‘현모양처’였다면 이제는 “남편의 업무를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인이 진짜 멋진 내조자”라는 것. 나아가 산업사회의 성공한 남자란 가정과 일 가운데 일을 선택한(or) 이들이었다면, 이제 가정은 직장과 ‘and’ 관계의 재충전의 장이어야 하는 것. 단적으로 말해 21세기는 “스마트하게 일하는 사람이 악착같이 일하는 사람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책은 샐러리맨들이 들으면 신바람날 이야기들이 수도무하지만 기업체 임원이나 사장이 들으면 몹시 절감할 내용들이다. 심하게 말해 책에는 샐러리맨들의 변화될 像이지만 “근본적으로 쇠신돼야 할 사람들은 소위 말해 이 사회의 지도층에 든다는 사람들”이다. 물론 그가 샐러리맨들에게 아부할 생각에서 그런 내용을 고른 것은 “절대” 아니다. 그의 판단기준은 기업컨설턴트로서 성공하는 기업, 사양길을 걷고 있는 예전의 유수 기업들을 분석한 결과에 철저하게 바탕해 우리에게 맞게 원용하여 도출한 것이다.

“뫼니뫼니해도 모든 혁신의 전제는 인재개발에 있습니다. 아무리 조직을 뜯고치고 프로세스를 합리화한다 해도 결국 혁신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 정혜욱 기자



비틀린 삶 쓸쓸히 바라보는 풍자적 서정 쾌변의 해탈 막는 특유의 '분변학' 펼쳐

— 「해가 지지 않는 쟁기질」 펴낸 차창룡씨

이 책 그 사람

“도시 출신의 친구들은 웃고, 농촌 출신의 고향친구들은 울었다.” 첫시집 「해가 지지 않는 쟁기질」(문학과지성사)

을 낸 차창룡씨(29)는 그의 시집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그렇게 요약했다. 황폐한 농촌과 가파른 도시빈민촌을 그린 그의 시집은 그런 점에서 풍자시집이 아니라 “풍자적 서정시집”이다. 관찰한 삶을 이야기할 때 서정성이 짙게 배였고, 상황을 이야기할 때 풍자의 전략을 취하고 있다.

“80년대 민중시 계열의 시는 건강하다. 농민과 도시빈민의 삶을 내면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시는 쓸쓸함의 정조가 지배적이다. 관찰자의 시각에서 바라봤기 때문일 것이다. 나의 풍자는 거기서 생겨났다.”

‘풍의 시인’이라 회자되는 그는, 그같은 주목에 값하듯, “무지 냄새 지독”한 풍자의 풍으로 시집 전체를 구성했다. 과작의 요절시인의 시집집 두께에 상당하는 166페이지의 시집이 뚱뚱하다. 「풍은 계급의 첨예한 반영이다」라는 연작시 제목을 패러디하여 그의 시세계를 규정하자면 “풍은 차창룡 시의 첨예한 반영이다.”

그러나 그의 풍은 오죽을 동반하지 않는 소화불량성 변비로 일관돼 있다. 문학과지성사 시인선의 해설 중 최장문의 해설을 쓴 문학평론가 정과리씨는 “차창룡의 풍 이야기는 분노학이 되지 못하고 분변학만 될 수 있다”고 읽는다. 車시인은 그의 분변학에 대해 쾌변의 해탈을 방해하는 ‘사나운 일진’을 풍자하기 위한 시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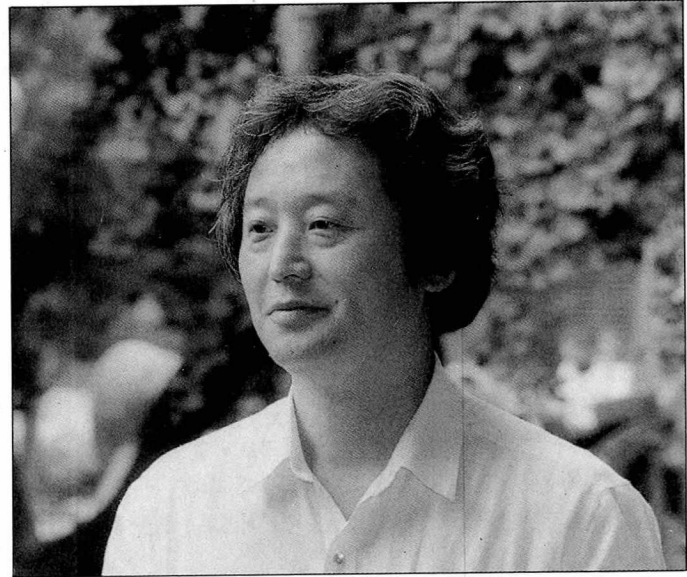
“똥으로써 풍자하고자 했던 대상은 농촌현실과 정치권력이었다. 변비, 그 자폐적인 똥은 막힌 언로에 다름아니다.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호가 차단된 딱딱한 변비똥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군대에서의 고참시절, 내게도 권력자의 속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때 이후 풍자의 대상은 나 자신과 나의 시로 옮겨갔다.”

그의 시에 의하면, 쾌변의 똥은 “하늘이다!”. 그 깨달음의 과정은 이렇다. 우선 밥은 “벌거벗은 부처들”이고, 밥통은 “꿇어 넘치는 열반의 선방”이다. 그 부처들은 몸속의 삼만 마리의 벌레를 먹여 살린다. 이윽고 쾌변의 똥이 나올 때, 대승적 해탈을 완성한다. 그리하여 “똥은 하늘이다!”. 비틀린 현실을 변비적 상황으로 환치시킨 그의 풍자는 ‘열린 사회’를 일종의 ‘출가’, 즉 ‘설사’에 비유한다. 그리고 설사는 “내 아픈 사랑의 반란”이다. 유일무이한 ‘설사시’의 한 구절은 이렇다.

“안쓰러운 눈으로 내려다본다/빛나는 명에도 없이 황금빛/권력도 없이 또다시/나의 하찮은 육체가 되는 너희들/.../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신음들/온갖 빛깔로 흐느끼다 죽어간 사람들/.../똥과 살과 바람과 함께/씩어가느냐 거름으로/내 육체의 물관 체관 할 것 없이/삭신의 곳곳마다 애무하느냐/내 아픈 사랑의 반란야”

차창룡씨는 전남 곡성에서 태어났다.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중앙대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 재학중이다. 올해 신춘문예에 당선된 문학평론가이기도 하다. 89년에는 「출판저널」 기자로도 일했다.

—김중식 기자



예리한 통찰력 인상적인 시인의 예술기행 정교한 미문으로 미술작품 핵심 표현해

— 「하늘에 닿는 손길」 펴낸 조정권씨

이 책 그 사람

조정권씨(45, 시인)의 예술기행산문집 「하늘에 닿는 손길」(문학동네)에는 색깔이 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빛깔이 있다고 해야 옳다. 그 빛깔은 여름날 비온 뒤에 하늘 한 편에서 서서히 세상의 끝을 치받고 오르는 무지개의 영롱함에 비유될 듯하다. 시, 그림, 음악, 시인의 삶, 시대상황, 여러 知人과의 관계 등에서 우러나온 ‘글쭈기’는, 그래서 맛과 멋을 함께 아우르고 있다.

세인들은 조정권씨를 단순히 「산정묘지」의 시인으로만 알고 있다. 하지만 조정권씨는 시인일 뿐만 아니라 미술평론가라는 직함도 갖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梧下 이병규 화백을 잘 알고 지냈습니다. 그 분은 제가 다니던 양정중학교 교감선생님이면서 우리집과 사돈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어서 자연스럽게 그림과 친숙하게 되었지요.”

때문에 상재한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시인이 보고 느낀 그림평’이라 할 만하다. 책은 4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크게 두 부분으로 내용상의 차별을 보이고 있다. 우선 1부에서는 시인으로서의 삶을 있게 한 지난날을 회상하고 있다. 자신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을 가만가만 들려주면서 한편에서는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음도 엿보게 한다.

2부부터 마지막 4부까지 조정권씨의 길 안내는 기차 철로처럼 이어져 있다. 한쪽은 시 또 다른 한쪽은 미술로 이어진 이 길은 동양의 사상이라는 받침목을 밑에 깔고 있어서 더 없이 튼튼하기만 하다. 이러한 바탕 위에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박수근의 「나무와 여인」, 이중섭의 「황소」, 윤보 김기창의 「바보산수」, 최중태의 「소녀상」, 중광의 「선화」, 화가들의 「누드 산책」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고의 정수만을 뽑아서 시를 쓴다”는 조정권씨의 말은 “미술작품 중 시적인 정수만을 뽑아 산문으로 썼다”는 말과 곧잘 어울린다.

때문에 시인의 예리한 통찰력과 언어감각으로 빚어진 정교한 美文이 산문집 전체를 아름다운 발광체로 만든다. 예컨대, “들풀은 청평의 딸이다”(「모노크롬의 가을」) “4월의 땅은, 아직 한 장의 늪은 피부 빛깔이다”(「누드 산책」)라고 말 할 때 조정권씨는 어쩔 수 없이 “참을 수 없는 시인의 감수성”을 문장 위로 ‘방사’한다.

조정권씨의 감수성은故 박수근 화백의 회화를 보면서 남달리 흔들리고 있다. “우물 속으로 감 떨어지는 박수근의 회화는 나를 뒤흔든다. 그러나 나는 박수근의 회화, 삶을 뒤흔들 수 없다”며 박수근의 회화가 만드는 적막의 큰 공명음을 듣고 한다. 故 박수근 화백과 조정권씨는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공명음은 더 크게 들린다. 조정권씨는 현재의 문예진흥원에 있기 전 故 박수근 화백과 함께 예술잡지 「공간」의 편집장과 주간직을 역임했던 것. 「공간」에 있을 당시 많은 예술가들을 만났는데, 「하늘에 닿는 손길」은 바로 그들과의 만남의 기록이 될 터이다.

조정권씨의 미술평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다. 최첨단의 이론을 도입해 난해한 용어를 섞어 작품을 이해하지 않을 뿐더러, 작품을 통해 읽어낼 수 있는 느낌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수 기자